

16강 - 학교안전사고의 책임

■ 학습목표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학교안전사고의 개념 및 특징에 대해서 숙지한다.

■ 학습내용

학교안전사고의 개념과 유형 및 특징을 살펴보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상 학교안전사고에 포함되는 범위를 살펴본다.

■ 핵심용어(용어사전)

- * 손해배상에서의 고의 : 일정한 결과 즉 타인에 대한 위법한 침해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감히 이를 행하는 심리상태
- * 손해배상에서의 과실 : 일정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주의 즉 주의를 게을리 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하고서 어떤 행위를 하는 심리상태
- * 추상적 과실 : 추상적으로 보통인, 표준인, 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주의를 게을리 한 것
- * 구체적 과실 : 개개인의 일상 평상시의 주의를 게을리 한 것
- * 손해배상에서의 책임능력 : 자기의 행위의 책임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며 자기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인식하는 능력이 아니라 그 결과가 위법한 것이어서 법률상 비난 받는 것임을 인식하는 정신능력

■ 사례 :

<사건의 개요>

서울시가 설치 운영하는 S공립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A는 점심시간에 구령대(조희대) 위에서 같은 반 친구인 B, C 등과 함께 '얼음땡'놀이를 하던 중 B에게 밀려 구령대 밑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치아탈구, 치관치근파절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를 당하였다. 당시 A, B, C 등이 놀이를 하고 있던 구령대는 창고 위에 설치된 것으로서 계단을 거쳐 올라가게 되어 있었고, 지면으로부터 약 210cm 높이였으며, 철봉으로 만들어진 추락방지용 난간의 높이는 약 60cm이었고, 세로 난간기둥이 5개 이상 빠져 있는 상태였다.

이에 A(미성년자이므로 A의 부모들)는 서울시 교육감, S초등학교장, B(B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A(미성년자이므로 A의 부모들)의 청구는 타당한가?

<이 사건의 쟁점>

학교 내에서 점심시간에 일어난 안전사고에 대해서 위 구령대가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채로 방치되어 있었는지 여부 및 학생들이 이러한 구령대에서 놀다가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은 예측할 수 있었는지 여부

<사건의 결말>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점심시간은 식사를 하고 오후 수업을 위하여 휴식을 취하거나 수업의 정리, 준비 등을 하는 시간으로서 교육활동과 질적, 시간적으로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그 시간 중의 학생의 행위에 대하여 교사의 일반적 보호·감독의무가 미친다고 할 것

이다.

특히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구령대(조희대)는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채로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러한 구령대에서 놀다가 언제라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은 누구라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S초등학교 교장 및 교사들은 구령대에서 추락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학교 안전사고예방교육 등을 철저히 하는 한편, 부단히 학생들의 동정을 살피면서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안전에 관하여 지도·감독하고, 구령대와 학교 내 시설에 학교 시설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보완하고 그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을 미리 막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A를 떠밀은 B(B의 부모) 및 이들의 사용자인 피고 서울시(교육감)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A(A의 부모)가 입은 손해를 공동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전문가의 의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조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서는) “교육감 및 학교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소관 학교시설 등을 설치·유지 또는 관리하는데 있어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학교장은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 따른 점검결과를 연 1회 이상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학교안전교육의 실시)에서는 “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및 교직원에게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10조 (안전조치)에서는 “교육감 또는 학교장등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교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고 대체시설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상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서는 “높이가 1m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 옆에는 난간을 설치하고, 계단 난간의 높이는 계단으로부터의 높이에 85cm 이상이 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나, 이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을 친권자 등 법정 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한다.

그 의무 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시간,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또는 사고 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으로서의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학교 교장 및 교사들은 구령대에서 추락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학교안전사

고예방교육 등을 철저히 하는 한편, 부단히 학생들의 동정을 살피면서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안전에 관하여 지도·감독하고, 구령대와 학교 내 시설에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보완하고 그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본 학습>

1. 학교안전사고의 개념

"학교안전사고"라 함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학생"이라 함은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자를 말하며, "교직원"이라 함은 고용형태 및 명칭을 불문하고 학교에서 학생의 교육 또는 학교의 행정을 담당하거나 보조하는 교원 및 직원 등을 말한다.

"교육활동"이라 함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및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등을 말한다.

"교육활동참여자"라 함은 학생 또는 교직원이 아닌 자로서 학교장의 승인 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직원의 교육활동을 보조하거나 학생 또는 교직원과 함께 교육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

가.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나.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다. 학교의 장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라.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

을 말한다.

3.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의 질병

가.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나. 일사병(日射病)

다.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라.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마.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을 말한다.

4. 학교안전사고문제의 복잡성

가. 학교안전사고는 단순히 피해 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다. 피해 학생과 학부모의 문제, 담임교사의 안전 배려 의무 위반으로 나타난 책임문제, 학교장의 감독 책임문제 등이 얹혀 있

다. 피해 학생의 경우 물질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까지 크고, 교사의 책임문제는 교권의 보장과 침해와도 연관이 되며 도의적 책임이란 심리적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다.

교육현장에서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한계가 명확하지 않고 대부분의 책임이 교사나 학교에 과도하게 부과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하여 교사의 심적인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

나.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책임은 교사의 고의나 과실여부와 예측가능성, 주의의무 이행의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민법상 학교안전사고가 교사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타인 즉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교사에게 책임이 있다.

국가배상법상 교사는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고의나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학생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교사에게 책임이 있다.

판례는 교육활동과 밀접 불가분한 생활관계에 있고 학교생활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교사에게 책임이 있다는 태도이다.

다. 통계상 학교안전사고에 의한 교권침해를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자교사보다는 남자교사에게 더 많이 발생하며, 설립별에서는 국·공립이 사립보다 발생빈도가 높으며, 학교 급별은 중·고등학교보다는 연령이 어린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에서 더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육활동과의 관련성 측면에서는 '정규 교육활동' 시간에 발생한 교권침해 피해사례가 월등하게 많았다.

5. 학교안전사고의 특징

학교안전사고는 주로의 형사적으로나 민사적으로나 법적책임을 묻기 어렵거나 경제적인 손해배상능력이 없는 학생들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가. 학교안전사고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학생들 사이의 장난이나 주의 산만에 기인한 학생 스스로의 사고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예기치 못한 우발적이고 돌발적인 사고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누구에게 사고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나. 학교안전사고는 사리분별력이 부족하고, 호기심이나 장난을 좋아하는 시기의 학생들이 모여 있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교사가 있는 상황이거나 있지 않은 상황이거나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다.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책임은 교사의 고의나 과실여부와 예측가능성, 주의의무 이행의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민법상 학교안전사고가 교사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타인 즉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교사에게 책임이 있다.

국가배상법상 교사는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고의나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학생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교사에게 책임이 있다.

판례는 교육활동과 밀접 불가분한 생활관계에 있고 학교생활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교사에게 책임이 있다는 태도이다.

라. 통계상 학교안전사고에 의한 교권침해를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자교사보다는 남자교사에 게 더 많이 발생하며, 설립별에서는 국·공립이 사립보다 발생빈도가 높으며, 학교 및 학급 별은 중·고등학교보다는 연령이 어린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에서 더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육활동과의 관련성 측면에서는 '정규 교육활동' 시간에 발생한 교권침해 피해 사례가 월등하게 많았다.

■ 정리하기

"학교안전사고"라 함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나, 이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을 친권자 등 법정 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한다.

그 의무 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시간,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또는 사고 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으로서의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학교 교장 및 교사들은 구령대에서 추락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학교안전사고예방교육 등을 철저히 하는 한편, 부단히 학생들의 동정을 살피면서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안전에 관하여 지도·감독하고, 구령대와 학교 내 시설에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보완하고 그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 평가하기

문제 1. 학교안전사고의 개념과 관련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학생"이라 함은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자를 말하며, "교직원"이라 함은 고용 형태 및 명칭을 불문하고 학교에서 학생의 교육 또는 학교의 행정을 담당하거나 보조하는 교원 및 직원 등을 말한다.

(3) "교육활동"이라 함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은 포함되나 등·하교 시에 발생한 사고는 제외된다.

(4) "교육활동참여자"라 함은 학생 또는 교직원이 아닌 자로서 학교장의 승인 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직원의 교육활동을 보조하거나 학생 또는 교직원과 함께 교육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정답 (3)

해설 ; "교육활동"이라 함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및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등을 말한다.

문제 2. 학교안전사고 중 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1)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 (2)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 (3) 학교의 장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 (4)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은 제외된다.

정답 (4)

해설 : 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에는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을 포함한다.

문제 3. 학교안전사고 중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의 질병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1)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 (2) 일사병(日射病)
- (3)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및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 (4) 외부 충격 및 부상이 간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정답 (4)

해설 :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의 질병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이 포함되나 간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은 제외된다.

문제 4. 중학교 3학년생들이 고적답사를 겸한 졸업여행을 떠나기 전날 학생주임 선생님과 담임교사가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당일 출발 시 학교장이 훈화를 통하여 들뜬 마음에 사고를 내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하였으며, 숙소로 도착한 직후에는 입소식을 거행하면서 학생들에게 특히 실내에서 장난을 치지 말도록 지시하였다.

그런데 식사 직후의 짧은 휴식시간에 감독교사들이 식사교대를 위하여 이할 무렵에 학생 숙소 방안에서 평소에 특별히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지도

않던 A가 학은 반 학생 B에게 폭력을 가하여 A의 한쪽 눈이 실명이 되었다.
A(A의 부모)는 담임교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해설 : 학생들이 졸업여행을 떠나게 되어 평소와 달리 기분이 들뜨고 해이해지기 쉬운 상황에서 심한 장난을 한다든가 서로 간에 시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학생주임이나 담임교사 등 학교 측의 안전교육이나 사전지시에 따르지 않고 돌발적으로 벌어진 사건 사고를 예측하였거나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교사들에게 보호·감독의 무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